

보도자료

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배포일 | 2013. 2. 15(금) | 홍보담당 | 기획처 홍보팀(880-5054) |
| 담당부서 | (재)서울대학교발전기금 | 문의 | 최사라 팀장(871-1630) |

제 목: 신영균 동문, 모교에 '신영균-서울대학교 발전기금' 조성 - 대학 재원확충 위해 제주도 대지 2만평 기부

- 영화배우 신영균 동문(84, 치의학과 ' 48입)이 모교인 서울대학교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'신영균-서울대학교 발전기금' 을 설립하고 제주도 대지 66,000여 m²(약 2만평)을 기부한다.
- 협약식은 2013년 2월 15일(금) 오후 5시 30분 서울대학교 행정관 소회의실에서 열렸으며, 오연천 총장과 신영균 동문을 비롯해 신언식 한주 홀딩스코리아 대표이사, 안성기 신영균 예술문화재단 이사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.
- 신영균 동문은 1960년 영화계에 데뷔하여 총 3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인으로,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회장과 15·16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명보극장과 제주 신영영화박물관 등 500억원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해오고 있다.
- 신영균 동문은 2010년 500억원 기부를 통해 '신영균 예술문화재단' 을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영화분야 인재발굴을 위한 장학사업과 어린이예술체험교육, 단편영화창작지원사업, 연극영화예술인 시상식 개최 등 활발하게 사회 환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.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'제22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' 으로 선정되기도 했다.
- 2012년 8월에는 서울대 연극동문회 부설극단 '관악극회' 창단 기념 공연 '하

안중립국' 을 통해 50여년 만에 연극무대에 복귀했다. 최연장자로 참여한 신영균 동문은 2012학번 후배들과 한 무대에서 공연하며, 후배들의 재능을 격려하고 지원하였다.

-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리더로서 평생의 좌우명인 ‘노블리스 오블리제’ 를 실천해오고 있는 신영균 동문은 “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한 번씩 살아볼 수 있었고, 또 그런 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평생을 지내면서 영화와 같은 삶을 살았다. 영화와 세상과 사람들과 함께 모두 한 가지 길 위에서 늘 함께였던 것 같다” 며 “그동안 받아온 사랑을 사회에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 이번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. 이 기부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, 학교가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 고 기부 동기를 밝혔다.

- 서울대학교는 기금을 기부자의 뜻에 따라 서울대학교가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.